



2024 유성문화원

수강생발표회

수강생전시회

수강생공연발표회

〈유성문화원 30주년 기념〉 인문학콘서트

정기문화답사

문화원의날

유성문화원 해피페터

유성 원드오케스트라

해피클래식

유성의 작가

전희수 작가 인터뷰

동네산책

덕명동 공원

독자편지

# 문화유성

2024 Vol. 230  
[www.yuseong.or.kr](http://www.yuseong.or.kr)



10



**02 2024 유성문화원**

**06 수강생발표회**

수강생전시회

수강생공연발표회

23



**23 정기문화답사**

**26 문화원의날**

**29 유성문화원 해피레터**

유성 원드오케스트라

29



**32 해피클래식**

**35 유성의 작가**

전회수 작가 인터뷰

**38 동네산책**

덕명동 공원(시간공원, 로봇공원, 숲속공원)

**41 독자편지**

# 2025 유성문화원 문화와 함께하는 도약

유성문화원 신순남 기자



지난 7월 18일 오후 1시, 유성문화원(원장 이재웅) 세미나실에서는 유성문화원 30주년 맞아 이재웅 원장을 비롯한 5명의 부원장과 전 직원 워크숍을 토대로 2024년의 유성문화원을 돌아보며, 준비된 2025년의 유성문화원을 살펴보았다.

이윤미 사무국장은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은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라며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그것을 극대화해 재현하면서 전승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화원의 역할 중 하나가 교육기관이다. 문화학교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보급하고 익힐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획들이 나와야 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돼야 하며 지역민과 소통하며 교류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며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생각을 전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조직 운영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유성문화원만이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윤미 사무국장



손새롬이 과장

손새롬이 과장은 ‘유성문화원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유성문화원은 잦은 직원 변동으로 인해 직원 간 소통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저희가 하는 사업은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 구조를 변화시키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도 리뉴얼하는 작업을 했다. 시스템도 변했다. 문화학교 시간대가 야간 수업을 주중으로 바꾸기도 하고 요일을 이동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했다.”라며 지난 시간동안 문화원이 변화·발전해온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다양한 계층이 찾도록 노력하고 관리 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유성품물단을 유성문화원이 관리함으로써 연회원을 늘리고 인원 동원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언정(전통문화 사업, 시설, 문화학교) 담당자는 “문화학교는 현재 40개 강좌에 35명의 강사, 650명의 수강생이 있으며 전통문화 부분의 11개 강좌는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수강료는 25% 감면받는다.”며 “전통문화 시연 및 행사를 하는데 구성원이 고령화되어 젊은 피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올해도 수강생은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유성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작품을 전시하고, 24일 유림공원에서 발표회를 가져 많은 호응을 받았다. 추가로 “담당하고 있는 시설 부분은 건물이 낡고 보수할 곳이 많으며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김순희(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는 “문화원에서 하는 일자리는 유성 지역과 관련된 설화, 구전 동화 및 역사적 인물, 사건을 인형극 및 연극으로 알리는 유성이알림단, 전통놀이 체험 및 전수활동을 하는 유성이전통단, 가요·전통무용·댄스·다양한 악기로 활동하는 유성이행복단, 합창 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로 정서적 안정감과



박언정 담당자



수강생 전시회



수강생 발표회



김순희 담당자



유성이알림단



유성이전통단



유성이합창단



유성이행복단



실버 페스티벌



문화탐방



황혜성 담당자



장터 만세운동



수신제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콘서트



공감과 소통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성이합창단 등 4개 사업단이 1개월에 10회 활동하는 데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달자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사업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는 지원자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4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전원은 문화탐방으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다녀왔고, 19일에는 유성이합창단이 2024 실버 페스티벌에 참가해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황혜성(문화사업, 대관) 담당자는 “장터 만세운동 & 의병제, 수신제, 풍물 대동제 & 단오제를 진행했고 특히 2024년에는 문화원 30돌을 맞아 특성화 사업으로 ‘미디어 시대 독서교육’, ‘내 인생 음악에 실어’ 등 10회의 인문학 콘서트를 진행 하였다고 밝혔다.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을 느낀다”며 “고령사회에서 인원 동원이 문제였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의진(문화사업, 공모사업) 담당자는 “정월대보름제, 유성문화원 해설사와 함께하는 유성역사바로알기, 10여 명의 기자와 만들어낸 문화유성 발간, 연 2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기문화답사 등을 진행했으며,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에는 ‘공감과 소통’ 국어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사업의 공통 목표는 문화원을 둘러싼 인적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다양한 행사와

운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및 유성 풍물단 연합회 등의 협조를 구하고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내년에도 인적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맑은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은 물론 연회원을 늘리는 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신입으로 들어온 정한나(문화학교)씨는 “2024 워크샵을 통해 문화원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동·서명선·우종수·이태희·임창빈 부원장과 직원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런 소통의 시간이 많아야겠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구나 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의진 담당자



정월 대보름제



유성 풍물 한마음축제



정한나 담당자



## 유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전시회 '함께해요, 별들의 함성'

유성문화원 김태균 기자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바야흐로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미뤄둔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괜히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이뤄낸 일들도 참 많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했다고 말이죠.



# 유성문화원

유성문화원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과목의 문화학교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문화, 예체능, 취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1일(월)부터 31일(목)까지 10일간 '유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전시회'가 열려, 수강생들의 노력과 결실을 나눴습니다. 이번 발표회의 주제는 '함께해(유), 별들의 함(성)'이었습니다.

다과회를 마련하여, 수강생들과 관람객들이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문화학교 수강생 전시회를 둘러볼까요?



갤러리 입구에 들어서자, 가정 먼저 수강생들의 '문인화' 작품이 보입니다. 문인화는 조선 중기 이후 문인사대부들이 사군자, 산수, 화훼 등을 다양하게 그리며 시, 서, 화 삼절을 아우르는 종합적 예술입니다. 이 외에도 어반 스케치, 토탈 캘리그라피, 한글 서예, 한문 서예 등 수강생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전문가 못지않게 작품이 훌륭합니다! 관람객들은 작품의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기념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10월 22일(화)에는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더불어 유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과 관람객, 귀빈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각 강좌의 선생님 또는 수강생 대표가 나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수강생들의 그간의 노력과 인고의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인화, 서예, 한글 서예, 한국화 등 우리나라 전통 예술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작품 소개자의 목소리와 몸짓, 표정에서 작품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작가의 특색이 달라서, 각 작품의 매력에 푹- 빠져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한 관객은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 하나하나에, 수강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바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유성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를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 참여하여 예술 활동을 펼쳐보고 싶습니다.”라고 관람 소감을 전했습니다.



유성문화원 수강생 발표회에서는 관객들이 QR코드로 우수 작품에 투표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관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각자의 마음에 드는 작품에 투표했습니다. 저도 투표를 했는데요. 작품을 응원하는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수강생발표회 종료 후, 관객의 투표를 통해 우수 작품 수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우수 작품 수상자는 1등 ‘토탈 캘리그라피’ 정혜숙 수강생, 2등 ‘기초부터 시작하는 유화’ 오민혜 수강생입니다. 상품으로는 유성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3개월 이용권이 주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유성문화원, 수강생, 관객,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수강생은 전시를 통해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나누었고, 작품을 통해 모두 하나 되어, 소통하고 공감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유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전시회 ‘함께해유, 별들의 함성’

- 전시 장소 : 유성문화원 1층 전시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
- 전시 기간 : 2024. 10. 21.(월) ~ 10. 31.(목)

# 함께해유, 별들의 합성

유성의 별, 유성문화원 수강생들이  
1년간 모아온 함성을 빛내다.

유성문화원 변정은 기자

향기로운 10월의 어느 날, 국화꽃 필 무렵이다. 오늘 유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지난 1년간 갈고닦은 솜씨를 뽐낼 무대인 이곳, 유림공원은 국화 축제가 한창이다. 며칠 전부터 뒤숭숭하던 날씨도 오늘의 공연을 위해 따사로운 햇살로 몸단장을 하고, 상쾌한 오후 두 시의 바람은 세상을 향해 다정한 꽃가루를 나르고 있다.

올해 유성문화원 수강생 발표회는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유림공원 야외무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공연 시작에 앞서, 한 해 동안 문화학교에 부지런히 발걸음 하며 문화원의 선율이 되어주었던 수강생들과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을 향해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총 12팀이 참여한 발표회는 전통음악, 전통춤, 서양악기 세 종류의 공연으로 제각기의 매력을 뽐냈다.

## 전통음악, 유성문화원의 뿌리를 증명하다.

무대의 막을 연 팀은 <토요해금>이었다. 해금은 두 줄로 이루어진 찰현악기이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깊고 풍부한 음색을 자랑한다. 소리가 맑고 애절하며,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특유의 음색 때문에 전통음악 뿐만 아니라 현대음악과 퓨전음악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토요해금> 팀은 연주곡 <시인과 나> 편곡하여, 서정적인 음율로 문화학교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2024 유성문화원  
수강생 발표회



## 가락장구



## 경서도 민요



## 시조창



## 판소리



<가락장구> 팀은 유성문화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다. 팀을 설립하고 운영한지 어언 30년이 되었다는 뜻이다. 문화원의 <가락장구> 팀은 독특하게 민요를 하면서 장구를 치기에, ‘장구병창단’으로 일컬기도 한다. <가락장구> 팀이 선보인 첫 번째 곡 “야월선문화”는 ‘밤에 달 아래에서 신선이 춤추는 곡’으로, 주로 궁중에서 연주되었으며, 조선 시대의 궁중 무용 음악으로 알려져 있다. 우아하고 정적인 선율이 특징이며, 밤의 고요함과 달빛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두 번째 곡 “만고강산”은 판소리의 단가 중 하나로, ‘오랜 세월 변함 없는 강산’이라는 의미이다. 이 곡은 판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짧은 노래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을 유람하며 그 경치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락장구> 팀은 “만고강산”的 가사를 “유성문화원 개원 30주년 축하해요~ 어화 좋다 함께 기쁨 나눠 나눠가요~ 만고강산~”으로 개사하여 전통 음악의 경쾌함 속에 특별한 날의 기쁨을 녹여냈다.

<경서도 민요> 팀은 “청춘가”, “태평가”, “경복궁 타령” 무려 세 곡을 준비했다. 경서도 민요는 한국의 전통 민요 중 하나로, 서울과 경기, 황해도 지역에서 불리던 노래를 포함한다. 이 민요는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각기 다른 음색, 리듬, 창법을 지니고 있다. 가성을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 덕분에 서정적이고 우아한 경서도 민요는 사랑, 자연, 풍자와 같은 서민의 삶을 노래한다.

<시조창>은 한국 전통 성악의 한 갈래로, 시조를 음악적으로 노래하는 형태이다. 시조라는 고유한 시 형식을 노래에 담아 감정을 표현하며, 조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팀 <시조창>이 준비한 곡 “푸른 산중하: 엮음지름시조”는 시조창의 틀에서 발전된 변형 형태로, 시조창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준다. 팀 시조창의 열창은 한국 전통 음악의 풍부한 미학과 정직이고도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해냈다.

“흥보가 기가막혀~!”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에서 박씨를 가져다 은혜를 갚는 제비를 보며 기뻐하는 흥보의 감정을 표현한 장면이다. 팀 <판소리>는 한국의 전통 음악 및 공연 예술의 한 형태로, 소리꾼과 고수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는 구술적이고 음악적인 연극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구비 전통이다. 객석에서 울리는 “얼쑤 좋다!” 추임새는 팀 <판소리>의 공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 열매가 익는 계절, <판소리>가 들려주는 노래를 들으며 선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정말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줄지도 모르는 일이니 말이다.



모두의 이목을 주목시킨 화려한 반짝이 의상과 폭탄머리 가발. 팀 <김소원의 퓨전장구>는 공연 시작 전부터 웃음을 선물했다. 퓨전장구는 한국 전통 악기인 장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결합한 형태이다. 팀 <김소원의 퓨전장구>는 전통 장구의 기본적인 연주법과 가락을 유지하면서, 트로트 음악 “고장난 벽시계”와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색채를 만들어냈다. 관객석은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고, 어깨를 들썩이는 사람들로 활력을 띠었다.

### 김소원의 퓨전장구



## 무대 위에 피어난 국화, 전통춤의 아름다운 몸짓을 펼치다.

우리나라의 전통춤은 삶의 철학과 감정을 우아한 동작으로 풀어낸 예술이다. 춤 속에 담긴 인생의 고난과 기쁨, 자연과의 조화, 깊은 사랑과 슬픔……. <김숙자류입춤>과 <한국무용>, <진도북춤> 팀의 무대는 감정의 희노애락을 표현했다.



<김숙자류입춤>은 한국 전통무용의 기본 춤사위로, 김숙자 명무에 의해 전승된 춤이다. 입춤'은 서서 추는 춤을 의미하며, 발 디딤을 기본으로 자연스러운 곡선의 춤사위를 특징으로 한다. 팀 <김숙자류입춤>의 무대는 국화 축제로 시끌벅적한 유림공원의 중앙에서 고요하고 섬세한 몸짓을 봄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훔쳤다.



팀 <한국무용>은 화려한 한복 의상을 입고, 춤사위에 따라 부채를 펼치고 접으며 그 기품을 선보였다. 한국무용은 한국의 전통적 움직임과 예술적 표현을 담은 춤의 총칭이다. 한국 고유의 역사, 철학, 감정, 그리고 미적 감각이 녹아 있으며, 전통적인 의식과 민속문화에서 발전했다. <한국무용>이 선보인 “화선무”는 자연의 조화와 여성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안무이다.



쿵쿵, 심장박동처럼 귓가를 울리는 북소리의 발원지는 팀 <진도북춤>의 무대였다. <진도북춤>은 북을 치면서 춤을 추는 것이 기본형태인, 역동적이고 화려한 무용이다. 전통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장식, 몸동작과 발놀림은 풍요와 화합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비롯하였다. 팀 <진도북춤>의 열정적인 무대는, 무대를 하는 이들과 보는 이들에게 활기를 불려일으켰다.

### 김숙자류입춤



### 한국무용



### 진도북춤



## “우리의 꿈 다시 한번 온산에 꽃만발할 때…….” 추억의 향기를 실어온 서양악기

### 오카리나



꾀꼬리처럼 맑고 신비로운 선율, 팀 <오카리나>의 메들리곡 연주는 순식간에 관객들을 동화 속 세계로 이끌었다.



### 포크통기타



통기타를 어깨에 메고 무대를 가득 채운 팀 <포크통기타>의 “징검다리-님에게”, “Wedding Bell” 연주는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날이 추워질수록 옷을 벗는 모순적인 가을 나무들 틈으로, 푸르른 하늘 위로, 옷깃을 스쳐가는 인연처럼 기타 선율이 퍼져갔다. 추억을 자극하는 힘 때문인가, <포크통기타>의 공연을 듣는 이들은 주름이 펴진다는 마법같은 소문이 있다.

### 아코디언



<아코디언>은 양손으로 연주하며 소리를 내는 특징적인 구조를 가진 악기로, 휴대용 풍금이라고도 불린다. 복잡해 보이는 외관과 달리, 코드가 간단해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 팀 <아코디언>은 “칠레꽃”과 “소양강 처녀”,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곡을 선보이며, 아코디언의 경쾌하고 감미로운 음색을 선보였다.



## 모든 계절엔 꽃가루가 날린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가을에 피는 국화꽃처럼, 우리 삶의 계절이 어느 시절을 지나고 있던 반드시 꽂은 편다. 국화꽃의 계절이 지나면 동백꽃의 계절이 찾아오는 것처럼. 2024년 유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모든 순간이 부디 향기로웠기를 바라며, 다가올 새해의 유성문화원도 늘 항상 반짝이길 기원한다. 유성문화학교 수강신청 방법은 유성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김기덕 센터장의 인문학 콘서트 |

# 유병장수 시대, 우리가 잘 사는 방법

김기덕 대전선병원검진센터장이 들려주는  
건강한 삶 관리법

유성문화원 조호근 기자



유성문화원 제8회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슬기로운 환자 생활〉이라는 주제로 대전선병원 검진센터장 김기덕 의사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콘서트는 건강의 정의부터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질병, 그리고 암 예방과 자기관리법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특강에는 열 명 내외의 수강생이 참석하였다.

김기덕 의사의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를 바라보는 현대 사회에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신체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일상 속 스트레스가 큰 병으로 이어지거나 작은 병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큰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꼭 아픈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는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임을 언급했다. 병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에, 가벼운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의사의 “암 발생률은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과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설명하며 일본 오키나와 마을을 사례로 들었다. 한때 장수 마을로 유명했던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 설치 이후 패스트푸드 문화가 정착하며 일본 내에서 단명 지역으로 전락했다. 이는 식습관과 생활방식의 변화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예시다.

또 다른 사례로 아시아 식도암 벨트를 소개했는데, 이는 차 문화가 발달한 아시아 지역에서 식도암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서 비롯된 용어다. 뜨거운 차로 인해 식도가 화상을 입고 염증이 생기며, 이것이 식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적 습관이나 행태가 암 발생률에 영향을 주므로, 스스로의 생활 습관을 고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김기덕 의사의 암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에 대해 “무엇보다도 담배와 술 등 좋지 않은 여러 생활 습관을 줄이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자세이며, 균형적인 식단과

운동 등 긍정적인 습관의 형성과 짠 음식 줄이기 등 부정적인 습관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무료로 접종 가능한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암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정기적인 검진도 있다. 김기덕 의사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록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강에 따르면 WHO(세계 보건기구)는 모든 암 중 3할이 예방 가능하고, 3할은 조기 진단 시 완치가 가능하며, 3할은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치는 되지 않더라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예방 만큼이나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셈이다.

특강 이후로는 수강생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졌다.





**Q** 약을 먹어야 하는데 잊어버린 경우 늦게라도 먹는가?

**A** 약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번에 중복해서 복용한다기 보다는 그 다음 식사 시간에 맞춰 먹는 것이 좋다.

**Q** 빈속에 먹는 약이 있고 식후 30분에 먹는 약이 있다. 차이가?

**A** 최근에는 식사와 무관한 경우가 많아 처방 의사와 약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내가 약을 먹기 편한 시간대, 그리고 이걸 빈속에 먹어도 상관없는지 등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Q** 매년 받던 건강검진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괜찮은가?

**A** 각자 장단점이 있다. 한곳에서 오래 했을 때는 자료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는 민감 정보이므로

병원끼리 공유하는 건 아니다. 다만 한 곳에서 검진을 하다보면 검진의 방식이 매년 같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한두 번씩 검진을 해 보는 것도 방법.

**Q** 무료로 하는 예방접종 이외 다른 방법이 있을까?

**A** 기본적으로 보건소 무료접종은 23가지가 예방되는 좋은 약이지만 항체가 오래 가지 않는다. 따라서 무료 접종 이후 1년 정도 뒤에 면역 증강제가 들어가는 예방 접종으로 맞는 정도면 된다.

**Q**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되는가?

**A** 대부분 같이 맞아도 상관이 없다. 다만 생백신인지 사백신인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생백신이면 약 4주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제일 좋고, 사백신은 접종에 큰 제한이 없어 같이 맞아도 된다.

건강과 자기관리에 직결되는 주제인 만큼 질의응답 역시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질문이 들어왔고, 이에 대한 김기덕 의사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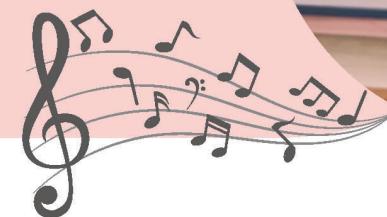
우리는 사는 동안 크고 작은 병과 함께한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이러한 병이 모두 두렵거나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님을 깨닫고,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해 주는 시간이었다. 나의 건강과 미래의 ‘유병 장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 | 한동운 음악감독의 인문학 콘서트 |

## 내 인생 음악에 실어~

힐링 클래식의 향연,  
내 인생의 음악은 높은 음자리표!

유성문화원 변정은 기자



막 입동에 들어선 11월 7일의 저녁, 유성문화원 2층 다목적실에서 누군가 콘트라베이스의 활을 켠다, 드럼을 친다,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 9회차 인문학 콘서트 “내 인생 음악에 실어~” 강연이 시작된 것이다.

강연을 맡은 한동운 음악감독은 대전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음악가이자 교육자이다. 목원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강의하며, 음악 저널 ‘클래시컬’의 주필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5년 ‘젊은 연주자들이 꿈꾸는 음악세계를 실현한다’는 슬로건 아래,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예술 감독 겸 단장으로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 또한, 한 감독은 다양한 음악회 기획과 해설, 글쓰기를 통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활동은 지역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연에 앞서, 한 감독은 수강생들에게 〈음악 이력서〉를 나누어주었다. 수강생은 강연을 들으며 질문지를 채워 나갔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음악 이력서〉의 맨 마지막 질문인 “내 인생과 음악은?” 질문에 도달하기 위한 감미로운 여정을 출발하였다.

이날 강연에 함께한 하지욱, 정유하, 한재현 연주자의 클래식 공연은, 강연의 시작부터 끝을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연주곡은 〈Somewhere Over the Rainbow〉, 〈Autumn





Leaves〉, 〈fly me to the moon〉 〈All of me〉, 〈사랑하기 때문에〉 총 다섯곡이다.

### 음악과 인생의 평행세계를 파헤치다.

클래식 음악은 우리 삶의 면을 다채롭게 담고 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악기들이 한데 모여, 주인공 자리를 번갈아 가며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흥망성쇠가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던가. 빛나던 시절이 있으면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도 있는 법. 곡이 진행됨에 따라 불룸과 긴장감이 증가하다, 마지막에 모든 악기가 함께 연주하며 압도적인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곡 〈볼레로〉는 그 패턴 자체로 희노애락을 상징한다.

음악과 인생의 평행세계는 이뿐만이 아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음악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 음악은 미세한 음율로 전진하다가 클라이맥스를 만나고, 클라이맥스를 지나 다시 미세한 음율로 잣아들기를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음악은 틈틈이 숨을 고른다. 그 잔잔한 떨림에 귀를 귀울이면 음악이 전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 음악과 이야기, 〈단두대의 행진〉과 〈단테 심포니〉를 읽다.

곡 〈단두대의 행진〉의 강약을 이해하면 음악의 '서사'가 읽힌다. 〈단두대의 행진〉은 헥토르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의 관현악 모음곡 〈환상 교향곡〉의 네 번째 악장이다.

이 곡은 베를리오즈 그 자신이 겪었던 극적인 사랑과 환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매우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곡이다. 〈환상 교향곡〉은 "한 예술가의 삶의 사건들"이라는 부제가 따르며, 음악적으로 특정 이야기를 묘사하는 표제 음악의 대표작이다. 이 교향곡은 예술가 자신의 이루지 못한 사랑과 환상 속에서 겪는 감정들을 다섯 악장을 통해 그려낸다. 이 중, 〈단두대의 행진〉은 네 번째 악장으로, 주인공이 절망 끝에 환각 상태에 빠져 자신이 연인을 살해했다고 상상하며 단두대로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한다. 곡의 초반부는 음울한 분위기로 시작하여 점차 악기들이 하나둘씩 추가되며, 주인공의 절망과 불안을 전달한다. 마지막에는 "연인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라는 주요 테마가 나타난다. 팀파니와 저음 악기가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주인공의 불안과 운명을 암시한다. 관악기와 금관악기의 화려한 곡조는 행진의 긴박함과 극적인 상황을 강조한다. 단두대로 끌려간 주인공의 목이 떨어지는 마지막 장면은 극적인 강약 조절과 급격한 정적을 통해 표현된다. 이 선율은 주인공이 연인을 생각하며 느끼는 애정을 상징하지만, 단두대의 칼이 떨어지며 갑작스럽게 멈추고 목이 떨어지는 효과를 음악적으로 묘사한다.

곡 〈단테 심포니〉는 〈신곡〉의 서사적 여정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 작품은 두 악장(지옥과 연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전개는 감정과 흐름에 따라 명확한 강약 변화를 보여준다. 제1악장, 지옥(Inferno)은 초반 격렬하고



강렬한 금관악기와 현악기의 불협화음을 시작한다. 이는 지옥의 혼란스러운 풍경과 고통스러운 절규를 상징 한다. 중반엔 갑작스럽게 강도가 약해지며 불길한 고요함이 드러난다. 이는 지옥 속에서 잠깐의 정적과 숨죽인 긴장을 표현한다. 이후 다시 강렬한 클라이맥스가 이어지며, 빠른 리듬과 폭발적인 사운드로 혼돈과 고통을 극대화한다. 악장의 끝은 오케스트라 전체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지옥의 고통과 처절함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을 묘사한다. 제2악장, 연옥(Purgatorio)은 지옥의 격렬함과 대조적으로, 부드럽고 고요한 현악기 선율이 연옥의 명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악음기를 사용한 현악기와 목관악기가 희미한 희망의 빛을 암시하며 서서히 음악이 전개된다. 중반, 금관악기와 팀파니가 합류 하며 구원으로 향하는 여정을 묘사한다. 후반은 합창이 등장하며, 천상의 세계를 암시한다. 이는 듣는 이에게 경건한 여운을 남긴다. 이처럼 〈단테 심포니〉는 지옥의 극단적인 강약 변화와 급격한 전개, 연옥의 점진적이고 서정적인 전개를 통해 단테 신곡의 극적인 서사를 전달한다.

음악은 희노애락, 이야기. 음악의 다채로움을 물결처럼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강연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연 초반에 배부되었던 〈음악 이력서〉도 이제 마지막 질문인 "내 인생과 음악은?"만 남겨두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어떤 일에 몰입할 때 유독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 감독은 '음악의 상대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음악을 듣다 눈을 뜨니 해가 저물어 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처럼 어두운 시절, 멈춰있던 당신의 시간을 흐르게 한 음악은 무엇이던가?

강연이 끝난 후, 수강생에게 〈음악 이력서〉 속 질문 중 하나인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음악은?"에 대해 물었다. 한 감독의 제자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김지연씨는 가수 아이유의 〈홀씨〉를 추천하고 싶은 곡으로 꼽으며, '홀씨처럼 가벼운 몸짓으로 떠올라 공중에 달고싶다'는 메세지가 자신의 현재 소망과 같다고 설명했다. 플루트 연주자로 활동 중인 수강생 최현서씨는 추천곡으로 〈칠갑산〉을 꼽았다. 한국의 전통적인 민요 선율을 기반으로 한 곡으로, 플루토로 연주했을 때 그 소리가 청하해 기분이 맑아지기 때문이다.

### 멈춘 삶의 시간을 흐르게 하는 음악의 힘을 느끼다.

대학하듯 주고받는 음악의 선율 속에서 우리는 꿈꾸듯 '삶'을 떠올린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서사'이다. 삶의 시간이 흐르게 만드는 자신만의 음악은 무엇인지 고심해보라. 그 고심 끝에 내린 답을 나눔으로써, 특별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자.



| 윤정애 강사의 인문학 콘서트 |

# 나이 들에 대하여

‘나이 들에 대하여’ 강연으로  
한 해 마무리

유성문화원 김태균 기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력 한장을 남겨 두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이맘때면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인생을 재설계하는 귀중한 시기다. 이에 유성문화원에서 진행한 인문학 콘서트에 가보기로 했다.

유성문화원은 지난 12월 13일(금), 희망으로 걷는 마음 걸음마 ‘나이 들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유성문화원 30주년 기념 인문학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를 장식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강연을 들을 후에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그 특별한 강연을 소개한다.

‘느림보 같은 인생’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된 강연은 강사의 지난 세월을 함께 돌아보게 했다. 31살 늦깎이 대학생 시절부터 쉼 없는 도전의 과정, 6년 후 대학교수로 임용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공황장애를 겪으며, 살기 위해 대학교수를 내려두고 다시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 이야기까지, 강사의 삶은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윤정애 강사는 前 대전보건대학교 교수이자 現 마인드앤바디브릿지 코리아 대표이며 신경심리학박사로서, 묵직한 삶의 이야기를 청중들과 공유했다. 특히 강사가 던진 한마디, “우리는 철학자입니다.”라는 말은 순간 나에게도 의문을 던졌다. ‘내가 철학자라고?’라는 생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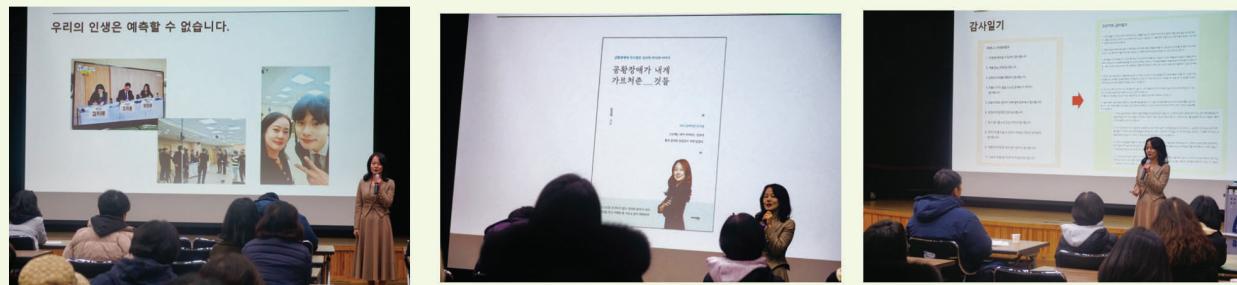
스쳤지만, 곧 이어진 강사의 설명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내 삶을 더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철학자입니다.” 이 말은 청중의 의문을 해소했고, 공감하고 수긍하게 했다.

이날 강연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의 소주제처럼, 진정한 ‘나’를 마주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데 있어,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청중 모두는 강연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고, 사람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인문학 강연에 집중하고 몰입했다.



‘묵직한 삶, 진솔한 이야기’ 강사는 군인 가족에서 자란 1남 2녀 중의 막내로, 엄격한 부모님과 형제간의 훈육 속에서 어린 시절 심리적 압박을 겪었다. 시간이 흘러 스무 살이 되던 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취업의 길을 택했다. 그 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스물 네 살에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혼 후에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겨, 서른 한 살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이후 끊임없는 노력 끝에 대학교수로 임용되었지만, 공황장애를 겪으며





두 차례 정신병원에 자진 인원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결국 살기 위해 대학 교수직에서 은퇴하며 잠시 방황했지만 심기일전해 마인드앤바디브릿지코리아의 대표로 활동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강사의 진솔한 이야기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꺽이지 않는 용기를 배울 수 있었다.

얼마 전, 윤정애 강사는 MBC 예능 '놀면 뭐 하니?'에 출연하며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대학교수를 그만둔 이후, 그녀의 삶은 찬란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가고 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강사는 공황장애를 앓으며 우울증과 발작을 겪었고, 수북히 쌓인 약들은 절망감을 더했다. 이 경험을 책에 담아 출판하며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다. 더 나아가, 절망의 나날을 바꾸기 위해 블로그에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떤 행복을 연습해 볼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이번 강연은 마치 미리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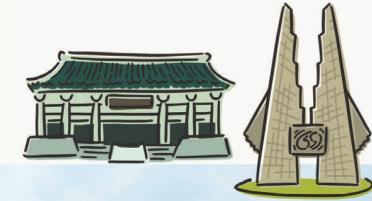
**나의 다짐**

1. 나는 100살까지 공부하고 시험을 볼 것입니다.  
2. 나는 100살까지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3. 나는 100살까지 어린아이와 웃으며 대화할 것입니다.  
4. 나는 100살까지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5. 나는 100살까지 내 마음과 몸 걸음마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강사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문제와 어려움에 결코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점차 극복해 나가고 있다. 현재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렇게 맞선다고 한다. “공황장애야 왔니? 반갑다!” 단단히 어조로 내뱉는 말에서 강사의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나의 다짐’을 소개하는 강사의 모습에서는 진심 어린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에 강연을 들으며 나 또한 2024년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을 맞이하는데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었다. 이번 강연은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 천안에서 만난 가을, 정기문화 답사의 여정

유성문화원 이덕성 기자



2024년 11월 1일, 유성문화원의 정기문화 답사에 참여한 40여 명은 천안으로 떠났다.

첫 행선지였던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했다. 천안독립기념관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역사적인 장소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독립운동의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이다. 이 기념관은 천안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독립운동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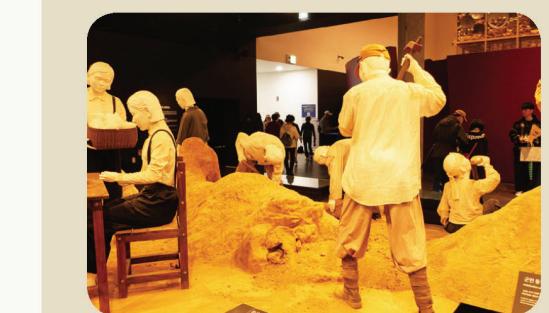


기념관 내에는 다양한 전시실이 있으며, 독립운동 당시의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천안에서 일어난 독립 운동의 주요 사건들과 그 당시의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천안독립기념관은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통해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방문객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독립기념관에서의 유익한 시간을 보낸 후 식사를 위해 병천 순대거리로 떠났다. 병천 순대거리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유명한 음식 거리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순대 골목 중 하나로, 다양한 종류의 순대와 순대국밥을 맛볼 수 있다. 병천순대는 찹쌀과 당면을 넣고 쫄깃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며,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순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맛볼 수 있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거리에는 순대를 전문으로 하는 많은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어 먹거리를 즐기기에 좋다.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순대국밥을 맛있게 먹으며 병천 순대거리를 즐겼다.

식사를 마친 후, 식당 근처의 아우내 장터를 방문하여 엿장수와 함께 장구를 체보기도 하고, 간단한 간식거리를 맛보며 장터의 매력을 즐겼다. 이곳 아우내장터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병천순대거리와 가깝게 위치해 있어 방문객들이 둘 다 함께 둘러보기에 접근성이 좋다. 이 장터는 다양한 식료품, 생활용품, 의류 등을 판매하며, 특히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아우내장터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터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다양한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장터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후 방문한 천안 중앙시장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주요 전통시장 중 하나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지역 주민들이 사랑을 받아온 역사 깊은 곳이다. 이 시장은 천안시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참여자들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저렴한 농산품이나 간식거리를 사는 등 쇼핑을 즐겼다.

마지막 행선지로 떠난 피나클랜드 수목원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아름다운 수목원이다. 이곳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장소로, 다양한 식물과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 피나클랜드 관람 중에는 상품이 걸린 포토 미션이 준비되어 있어, 참여자들은 각자의 개성을 담아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모두가 멋진 포토존을 찾아 즐겁고 활기찬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천안 정기문화 답사는 당일치기로 짧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긴 시간이었다. 담당자의 진행에 따라 각 답사지마다 상품이 걸린 퀴즈를 통해 열띤 시간을 보냈고, 돌아오는 길에는 참여자들의 소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행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답사의 최연소 참가자인 최모 군은 “7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혀 참여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답사 여행이 끝났다.



# 2024 대전지역 문화원의 날 기념행사

유성문화원 황인봉 기자



지난 10월 16일 오후 2시, 총결산의 자리라 할 수 있는 문화원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대전의 문화 발전시켜 나가는 유성문화원을 비롯한 서구문화원, 중구문화원, 동구문화원, 대덕문화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개식에 이어 오픈식에는 이재웅 대전문화연합회장 환영사, 이장우 대전시장 축사, 조원휘 대전광역시 의장 축사,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재웅 대전문화원연합회장은 축사에서 “문화원은 1953년 대전문화원을 시작으로 약 7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화 활동의 씨를 뿌리고 생활문화의 물결을 일으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대전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시민과 문화 예술단체”라고 밝혔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으로 삶 속에서 문화를 누릴 때 진정한 행복감과 자아를 찾을 수 있다며 더욱 문화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이재웅 대전문화원연합회장 환영사



이장우 대전시장 축사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축사



영광의 수상자들과 함께



영광의 수상자들과 함께

이장우 대전시장은 “문화원은 수준 높은 지역 문화를 창달하고 시민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널리 확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대전의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도전을 독려하며 대전 문화의 풍요로움을 더해 왔다고 전하였다. 대전시도 문화원이 지역 문화 발전의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약속드린다며 문화원의 날을 맞아 헌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문화원에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안식처인 대전시 5개 문화원에서는 시민들의 고품격 생활문화 공유, 지역 역사 안내, 각종 문화사업, 평생교육 축제 등을 수행하며 대전시민들이 보다 풍요롭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의 계절인 가을에 문화원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 가족들 간의 결속력 강화와 자부심이 고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축사가 끝난 후에는 2024 문화원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이날 표창에는 대전광역시장상,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 대전광역시문화원연합회장상으로 총 15명의 문화인들이 수상을 하게 되었다.



대전서구문화원 소프라노 조용미



대전서구문화원 테너 권순찬



유성 원드오케스트라



동구문화원 하모니싱어즈



대덕문화원 얼씨구 장구병창



전통가수 오예중



2부 행사는 박종훈 앵커의 사회로 문화의 향연이 펼쳐졌다. 식전스페셜공연으로 블랙자스민의 바다새, 사랑아, 둉지 노래로 막을 열었다. 이후 5개 문화원에서 준비한 축하공연으로, 문화원마다 각각의 멋과 색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첫 번째 순서로, 대전 중구문화원의 은빛소리샘(하모니카 양상불)팀은 ‘고향무정’,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연주로 실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서 대전서구문화원은 소프라노 조용미와 테너 권순찬의 V. Herbert의 ‘Italian Street Song(이탈리아 거리의 노래)’, F. Wildhorn의 This is the moment(지금 이 순간)은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아 스며들게 했다. 유성문화원의 유성 원드오케스트라는 ‘사랑하면 할수록’, ‘Over the Rainbow’,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세 곡을 연주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전동구문화원 하모니싱어즈(합창\_플룻&색소폰 협연)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행복한 산책’, ‘도라지꽃’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명지휘자의 손끝을 통해 아름답게 흘러 나왔다. 축하공연의 마지막으로는 대덕 문화원의 얼씨구 장구병창팀으로 ‘청춘가’, ‘태평가’, ‘한강수타령’, ‘뱃노래’, ‘자진뱃노래’를 구성지게 불러 흥을 북돋았다.

문화원의 날 마지막 스페셜공연에는 히든싱어 장윤정편 우승자 가수 오예중이 출연하여 마지막 휘날례를 멋지게 장식하며 참가자들과 신명나는 시간을 가지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구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 했다. 대전 문화의 중추역할을 하는 문화원이 지역민과 함께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고양된 시민의식과 높은 문화의 향기가 널리 퍼져 아름다운 고장 대전이 되길 기대한다.

## 유성 원드오케스트라 김민정 음악감독과의 담화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최우수상의  
쾌거를 기념하다!

유성문화원 변정은 기자

유성 원드오케스트라는 유성문화원 소속 관악 연주 단체이다. 올해 8월, 제48회 국내 최고 권위의 관악 경연 대회인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한발행진곡’과 ‘Concerto D’ Amore’를 연주해 최우수상의 쾌거를 누렸다.

###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성 원드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김민정입니다. 지휘부터 편곡까지 다양한 일을 맡고 있어요.

실력을 다져왔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등 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 공연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올해는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 유성 원드오케스트라는 어떤 단체인가요?

유성 원드오케스트라는 2016년도에 창단했어요. 관악기 구성으로 플룻·클라리넷·색소폰·드럼·베이스기타 등 여러 악기가 하나가 되어 화음을 이루는 관악합주단입니다. 매주 목요일 유성문화원 강당에서 정기연습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 동안에도 꾸준히 온라인으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연습하며

### ♪ 유성 원드오케스트라의 시작이 궁금해요.

2016년 창단할때는 아마추어 연주자 9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단원이 38명이 되었습니다. 단원을 모집한 적은 따로 없는데, 재능기부연주를 많이 하다보니 입소문으로 모였어요. 처음엔 ‘유성문화원 현대예술단’으로 불렸는데, 예술단이라는 포괄적인 이름보다 관악이라는 명칭과 유성문화원 소속임을





나타내기 위해 올해부터는 ‘유성 원드오케스트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현대 예술단이던 시절부터 포함하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8년 넘게 활동 중입니다.

### ♪ 유성 원드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있나요?

무조건 인성이 1순위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성격이 급하다거나 이해와 협동심이 부족하면 단원이 될 수 없어요. 음악치유법 들어보셨죠? 좋은 음악은 고운 마음에서 비롯되거든요. “음악으로 하나되어 행복과 희망을 전하자” 이것이 저희의 좌우명인데 계속 이어져야죠.

### ♪ 재능기부 연주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오케스트라 운영 초기에는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서 공연을 최대한 많이 다녔어요. 단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게 어려운 일인데도 모두 열심히 해서 지금의 실력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음악회를 다니는 학생이 줄다보니 아이들에게 잠깐이라도 음악을 들려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는 ‘해설있는 음악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 재능기부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감독님은 어떤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모든 순간이 보람되고 즐겁지만,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음악회를 할 때 특히 더 밝은 기운을 얻는 것 같아요. 하루종일 공부하느라 힘든 학생들이 호기심을 뛴 얼굴로 한곡 한곡 해설과 함께 경청해요. 음악으로 함께 소통하는거죠. 활짝 웃는 얼굴과 박수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저희가 힐링을 하고 온답니다. 한 번은, 공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드럼연주자에게 싸인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저희의 공연이 아이들에게 꿈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요. 그래서 그런지 공연이 끝나면 “수고했다”는 말보다 “잘 들었어요”라는 말이 더 좋아요.

### ♪ 최근에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소감이 궁금합니다.

열심히 연습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대회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유성문화원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단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준비한 자가 기회를 얻는다”라는 말을 하며 여러 장르의 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단원들 실력에 맞게 편곡하여 지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곡은 ‘Concerto D’ Amore’라고 발표를 하니 단원 모두 놀라며 이 곡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전공자도 어려운 곡인데 아마추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곡이었죠. 하지만 노력하면 안되는 게 없다고 믿기에 단원들과 함께 몇 개월 동안 연습하니 어려운 곡도 쉽게 되더라고요. 대회가 무더운 8월달이었는데 서로 땀 흘리며 노력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았어요. 어떤 날은 힘을 내라고 총무님이 간식을 준비하셨는데, 그 일을 계기로 매주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며 간식을 준비하더라고요. 간식을 나눠 먹으며 더욱 끈끈한, 가족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 ♪ 관악경연대회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긴장하시지는 않았나요?

긴장하죠. 연주는 10분이지만, 연습은 열 달 걸리거든요. 단원 모두 직장 퇴근 후에 바쁜 시간을 내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긴장 때문에 공연을 그르치면 속상하잖아요. 무대 오르기 전 “우린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습해오던 것처럼 하자” 다짐을 한답니다.

### ♪ 무려 최우수상이에요. 상 받을지 아셨나요?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가 48회째이다 보니 많은 단체가 참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하는 데 의미를 갖자는 마음으로 대회에 나갔었어요. 최우수상에 “유성 원드오케스트라” 저희 이름이 호명되는 찰나, 우리 모두 가슴이 북받쳐 올랐죠. 그 기쁨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 ♪ 연말이에요. 2025년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국순회공연도 계획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해외연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목표로는 2025년 제주국제관악제에 출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있으면 기회가 오리라 생각하며 단원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 ♪ 유성문화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유성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더욱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외 계층을 위한 공연을 지금보다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4월에 유성보훈병원에서 연주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박수치며 함께 노래도 해주시고 환한 미소에 뽀얗게 햇살이 비추던 장면이 생생히 기억나요. 유성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 ♪ 감독님께 음악은 어떤 의미인가요?

음악은 나의 인생이자 삶이에요. 초등학교때는 합창단에서 활동했고 중학교때는 합창지휘를했고 유성여고에서는 관악합주단을 하였으며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클라리넷전공을 하였죠. 음악은 내 인생이자 삶이에요. 특히 음악을 편곡하는 일이 재밌고 신비스럽습니다.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 같은 요리를 해도, 만드는 사람의 손맛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듯이 단원들의 실력에 맞게 한 분씩 얼굴을 떠올리며 편곡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곡을 완성하며 연주할 때는 단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 ♪ 함께하는 단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쁜 와중에도 매주 합주를 위해 개인 연습하고 오셔서 합주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공연시에 연주할 때는 음악을 들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화하듯 기쁨과 행복을 나눈다고 생각하며 연주하세요. 그러면 그 기쁨과 행복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밝은 미소로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유성 원드오케스트라여서 더욱 행복합니다.



행복엔 정답이 없다. 수천명의 삶이 있다면, 수천가지의 행복이 있는 법이다. 유성 원드오케스트라의 행복은 음악을 나누는 것이다. 악기에 불어넣는 숨결처럼 다정한 김민정 음악감독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유성 원드오케스트라의 앞날이 음악으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한다.



## 2024 해피 클래식 보다 가까이 클래식을 접하자! 우리 동네 해피클래식

유성문화원 조수진 기자



24년 7월 4일 11시 유성문화원에서 대전시립교향악단의 2024 우리동네 해피 클래식 공연이 개최되었다. 보다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클래식의 벽을 허물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열리는 해피 클래식 공연은 벌써 10년 이상 유성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는 7월과 10월에 두 차례 선보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순서인 7월 공연에는 유성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신흥 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와서 공연 자리를 더 풍성하게 빛내주었다.

한편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는 대전시립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는 폭넓은 래퍼토리와 다채로운 기획을 선보이며 대전 시민에게 음악으로 행복을 전해주고 있다. 연간 80여 회의 연주를 진행하는 대전시립교향악단은 공연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시리즈의 연주회를 선보이고 있다. 세계적 명성의 국내외 연주자가 함께하는 '마스터즈 시리즈'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테마에 맞춘 음악이 함께하는 '디스커버리 시리즈', 깊고 섬세한 실내악의 매력을 보여주는 '챔버 시리즈',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아침의 여유 '마티네 콘서트', 단원들의 수준 높은 기량과 개성을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DPO클로즈업'까지 다양한 기획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 펼치는 '해피 클래식'을 비롯하여 문화 소외 계층, 기업체, 각종 기관, 학생을 위한 연주회 등 대전시 구석구석에 음악의 즐거움을 전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해피클래식 프로그램은 다양한 악기 소리의 특징을 잘 묘사해 보여주는 곡 구성으로 클래식이 생소한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맨 처음 클라리넷 독주로 공연의 막이 올랐는데, 일반적인 클라리넷 연주로 시작하는가 싶더니



곡 중간부터는 악기를 하나씩 하나씩 분리하면서 각각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색적인 연주는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해 보였다. 두 번째로 등장한 플루트는 우리에게 친숙한 '왕별의 비행'을, 세 번째로 대형 실로폰이 등장하여 다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 모음곡을 선보였다. 친숙한 곡에 청중들 모두 따라 부르며 함께 참여하는 공연장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세 개의 악기가 독주로 선보인 후 모든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가 1악장부터 14악장 까지 차례로 연주되었다.

1악장에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을 시작으로 암탉과 수탉, 거북이, 코끼리, 캥거루, 수족관, 귀가 긴 사람들, 숲속의 뻐꾸기, 새장, 화석, 백조, 마지막 14악장 피날레로 이어지는 동물의 사육제는 악장마다 등장하는 동물과 그 동물의 소리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악기들의 소개 멘트로 공연을 즐기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악기의 소리들이 각각의 동물들과 많이 닮아 있어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공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참석한 청중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우리때는 이런 공연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공연이 아이들 교육상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음악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어요."



"정말 재밌고 좋고 그리고 음악 듣는 게 좀 행복했어요."



"저는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를 몰랐는데 오늘 와서 알게 되었고 클라리넷이 숲속의 뻐꾸기를 표현할 때 좀 우아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모르는 악기도 알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이에요 소소한 감동, 그리고 동물의 사육제 피날레 때 전체 악기가 다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니 너무 흥겹고 힐링되는거에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동네에 이렇게 와서 해주니 너무 좋더라고요."

돌아가는 청중들의 표정이 모두 밝아서 보기 좋았다.

10월 17일 두 번째로 열린 해피클래식 공연에는 멜타샌드 어린이집에서 단체 관람을 와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그래서인지 이날 곡 순서는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물의 사육제가 먼저 연주되었다. 악기들의 다양한 소리가 나타내는 동물의 모습을 그려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 보였다. 이어서 클라리넷 솔로, 플루트 솔로에 이어 실로폰의 경쾌한 소리에 맞춰 동요 모음곡 5곡이 연주되자 아이들과 청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따라 부르며 박수치며 호응하기도 했다.



공연 관람을 마친 안소윤 어린이는 “재밌고 신났어요, 악기에서 백조 소리가 나서 신기했어요”라고 했고, 이승주 어린이 역시 “신나고 좋았어요 백조소리가 나오고 캥거루 소리가 나서 재밌었어요”라고 했으며 전요엘 어린이는 “노래를 따라 불러서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올해 공연을 진행하고 피아노 연주를 맡은 이진옥님과 몇 마디 나누어 보았다.



피아노연주자 이진옥님

**▣ 올해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악기들 소개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로 악기를 좀 많이 넣어서 아이들이 ‘아, 이 악기가 이름이 뭐고 어떤 소리가 나는 구나.’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악기에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 그래서 그런지 아까 나가시는 청중분도 이 악기가 이런 소리 내는 걸 처음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죠. 사실 그걸 바라고 한 거니까.. 잘 알아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 곡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악장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 곡으로 동물의 사육제를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동물의 사육제를 보면 악기가 동물들을 대표하는 게 재밌게 나와있기 때문에 먼저 선택을 했고, 그 다음 클라리넷과 플루트를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해서 두 악기의 솔로곡을 했어요. 그 다음 실로폰 연주는 사실 작은 규모의 연주회에서 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로폰으로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동요도 같이 부를 수 있게 참여하는 음악회도 해봐야겠다 해서 실로폰과 함께 노래하는 순서도 넣었습니다.

**▣ 공연을 마친 소감이 어떠신가요?**

항상 뿌듯해요. 해를 거듭할수록 좀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처음에는 막 떠들고 이랬던 아이들도 경험이 쌓여가서 그런지 태도가 엄청 좋아요. 호기심 가득해서 듣고, 그래서 좀 뿌듯하죠. 항상 뿌듯함이 젤 큰 것 같아요.

**▣ 앞으로 목표나 바람은 무엇인가요?**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정말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정통 클래식뿐만 아니라 조금 가볍게 들을 수 있는 클래식이나 대중적인 음악들도 많이 하거든요. 규모도 큰 공연에서부터 아주 작은 규모의 음악회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입맛에 맞는 그런 연주회를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큰, 연주자가 많은 공연만 듣다보면 하나 하나 친밀함이 없죠. 오늘같이 소규모로 하는 연주회는 더 친밀함이 느껴지고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여러 공연의 다양성을 보시고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해피 클래식 공연을 통해 친숙한 곡들로 먼저 다가간 다음에 어려운 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 “인생 오후” 전회수 작가를 만나다.

유성문화원 황인봉 기자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며 빈 그릇을 채워가는 여정이 있다.”

“이제 꿈같은 현실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다.”



11월 늦가을 정취가 아름다운 날, 대전 유성구 상대동 자택에서 전회수 작가(이하 전 작가)와 만났다. 전 작가는 충남 광천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다. 현재 문학교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 전회수 작가는

전 작가는 2019년 “좋은생각” 생활문예대상 입상, 2022년 한밭전국백일장 장려상, 2023년 “문학교을” 수필부분 등단, 우수작가상을 수상했다.

“인생 오후”는 작가의 칠순을 맞이하면서 인생 소회를 담아낸 고희기념 출판도서이다. 그동안 인생의 수많은 고뇌의 산을 타고 넘어 환희를 창출해 낸 베토벤처럼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병고와 인연과의 아픔도 능히!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며 빈 그릇을 채워가는 여정이 있다.” 이제 꿈같은 현실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다”고 칠순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다.

### ▣ 인생 오후

이제는 인생 오후를 지나 노을을 바라본다. 어떠한 모습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절실히 과제 속에 놓여있다. 인간도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면 고인 물처럼 성장의 힘을 잃는 것과 같다. 인생 칠십 고개에서 조그마한 꿈을 이루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꿈만 같은 일이다. ‘파블로 카잘스’는 ‘절대로 인생을 우습게 보지마라! 인생에서 뒤처지지 마라’라고, 이는 언제나 인생의 현역임을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에 달려 있다.



2023 문학고을 상반기 등단식



전희수 작가



수필집 인생 오후

##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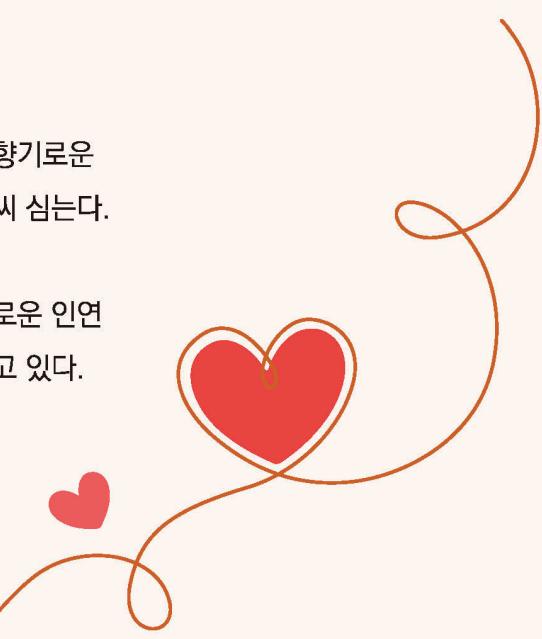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치는 인연도  
깊은 인연도 맷게 된다.

그 인연을 통해 기쁨과 슬픔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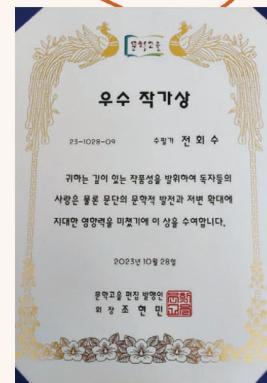
또 다른 길목에서 어떤 인연  
새로운 인연과 마주하게 될까

따뜻하게 열려있는 향기로운  
마음으로 심전에 꽂씨 심는다.

꽃잎 피어오르니 새로운 인연  
새로운 발길 다가오고 있다.



문학고을 충청지부 동호회 참여 사진



우수작가상 수상



수상사진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을 이렇게 노래했다.

전희수 작가는 고달픈 삶에 지쳐도 가슴 속에 새겨진 꿈은  
저버릴 수 없었다. 그 꿈이 가슴에 새겨져 있기에 고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솟았다. 언제나 가슴 속에 또 다른  
내가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꿈을 향해 여기서  
끝까지 헤엄치지 않는다면 평생 굴욕적인 파도가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 스승과의 인연

인생의 스승이 있는 사람은 강하다. 전 작가에게도 인생의  
스승이 있다. 작가, 평화운동가, 사진작가인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이다. “나의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나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스승은 말씀하였다. 젊은 시절 스승의 훈도로 생활 속  
고비마다 고뇌의 시간도 향기로운 바람으로 바꾸는 지혜  
로움을 쉽게 얻어 낼 수 있었다. 고로 생명에는 위대한  
마음이 깊은 곳에서 최고로 기쁜 대환희가 솟아난다.

환희로 가득 찬 샘물은 그 어떤 시련이나 역경에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자신이 한 행동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  
온다는 사상을 전하기도 하였다.

생명력이란 미래를 믿는 힘이고 희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힘일지도 모른다. 행동이 없는 인생에 승리의 깃발은 없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나는 승리의 깃발을 가슴에  
품고 도전이 쌓여야 비로소 빛나는 인생이 된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따른다. 인간으로서 타인의 불행  
위에 행복을 쌓지 말라는 수많은 가르침을 생명 속에 새기며  
오늘도 스승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름다운  
사제의 유대는 만남을 뛰어넘어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빛남이 아닐까?

**인생의 스승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전 작가이다. 이제 남은  
시간들이 더욱 무지개 빛으로 영롱히 빛나길 기대해 본다.  
건강과 함께!

# 유성의 소공원을 찾아서

## 길가의 작은 공원이 주는 기쁨

유성문화원 김옥배 기자



길을 걷다가 잠깐 쉬고 싶을 때 발견되는 작은 나무 의자 하나가 반가울 때가 있다. 꽃피는 봄날이나 햅볕 따가운 여름날 오후, 단풍으로 물든 나무 주변을 지날 때면 더욱 그러하다. 시멘트 구조물들 사이에 잘 가꿔진 도심의 소공원들은 잠시 오가는 사람들의 이런 사소한 소망에 부응하는 작지만 반가운 안식처가 아닐까?

대전 현충원 가는 길목 덕명네거리 주변에는 아기자기하게 가꿔진 소공원들과 오래된 소나무들이 모여 있는 작은 숲이 있다. 여기는 자동차로는 쉽게 지나치기 일쑤여서 공원이 어디 있다는 거지 하며 헛웃음을 지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천천히 걸어서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시간 공원'은 하우스토리 아파트 정문 옆에 있는 공원으로 '시간'이라는 이름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는 데 설치된 조형물을 보면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된다.

입구의 양쪽 벽면에는 유성구 초등학생들의 공원에 대한 소망을 담은 글짓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읽다 보면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안쪽에는 시계탑이 있고 옆면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문구가 이 공원의 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정자의 나무 의자에 앉아 바닥에 시선을 주면 옛 놀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뒤쪽에는 요즘



붉게 물 들어가는 화살나무로 주변이 둘린 커다란 그네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번 타보고 싶도록 유혹한다. 집집이 식구가 많은 시절, 둘만 날으라 홍보하던 시절, 틈만 나면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공터에 모여 쉽게 할 수 있었던 오징어 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놀이 등이 지나간 시간을 소환하고 나이 든 세대의 향수를 자극한다. 하지만 요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상황과 인식의 변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미래에 대한 큰 걱정으로 다가와 있다. 초고령 사회, 급격한 인구 감소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해법을 찾아 다 같이 지대한 관심을 보내야 할 때다.

'시간 공원' 아래쪽으로 걷다가 유성천을 건너면, 동서대로 옆쪽으로 상가와 빌라 건물들 사이에 숨어있는 듯하지만, 그 조형물의 형태로 인해 아 여기구나 하면서 만나게 되는 곳이 '로봇 공원'이다.

만화나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로봇들이 점점 사람들의 삶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고, 지금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더욱 진보된 AI 로봇과의 공생이 어떠할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저렇게 누워있는 로봇 조형물이 머지않은 시기에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 하며 도우미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로봇 조형물의 한쪽에는 높낮이가 다양한, 알록달록 장식된 미끄럼틀과 바닥 분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름이면 물장난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인 듯하다.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고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록 사람 사이의 소통과 교감이 이뤄지는 공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로봇 공원을 뒤로하고 덕명네거리를 지나 현충원 방향의 대로를 걷다보면 왼쪽으로 작은 소나무 동산을 발견할



수 있다. 좀 더 가까이 가다보면 크고 작은 100여 그루의 소나무가 고고하게 서 있어 어느 순간 올려다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앞쪽에는 전시상황이나 전투에 참여하여 공적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은 이들을 기리는 ‘무공 수훈자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당신의 거룩한 희생은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었고~’로 시작되는 건립 취지문은 오가는 행인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소나무 숲을 걸으며 솔향과 들풀들에 몸과 마음이 끌릴 때쯤 반대쪽으로 나오게 되고, 30여 미터쯤 가다보면 길 오른편에 ‘숲속공원’이라는 안내 팻말이 등장한다.

‘숲속공원’은 그루터기 놀이대(미끄럼틀), 사슴벌레 놀이대(클라이밍), 거미 놀이대, 나무집 등으로 조성되어 미끄럼틀 타거나 경사면을 기어오를 수 있고 바닥은 넘어져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모래를 깔아 안전을 고려하였다.



같은 땅에서 사는 나무나 곤충 등의 생명체와 공존하고 친밀감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을 염두에 두고 꾸며진 공간인 듯하다.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숲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곳곳마다 숲과 관련된 길이나 시설이 늘어나서 숲과 치유의 공간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 경제적인 이득추구만의 관점이 아니라, 같은 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명체가 아름답게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누이가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장면을 더욱 반갑게 지켜보게 되는 요즈음이다.

## 인문학 콘서트 「드라마로 보는 세상」:

유성문화원 김철홍 자유기고가

자주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의『드라마로 보는 인생』인문학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폭우를 무릅쓰고 유성문화원으로 차를 몰았다.

시절인연으로 장편소설 ‘인간시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인 김홍신 작가와 수시로 소통하고 만남을 갖는 등 평소 글을 쓰는 분들과의 교류를 좋아하고 특히 드라마 평론가와의 만남은 처음인지라 나이 60 중반에 주책일지 몰라도 설레는 마음도 있었다.



집중하고 아이컨택을 위해서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 그의 겸손하고 진지한 멘트를 시작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입력했다. 진행 방식이 ‘들어가는 말, 박지은 작가, 가족과 드라마, 나가는 말’ 순으로 학생들에게 하는 강의 형식을 탈피한 소수 인원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연출하는 듯해서 분위기는 더욱 진지했다.

과거 지상파 3사에서 불리던 프로그램이 콘텐츠 시대로 불리는 시대로 바뀌었고 주말 가족드라마로 3대가 사는 가족드라마가 우리나라 드라마의 역사요, 드라마의 대모인 김수현 작가가 2016년 사실상 은퇴작 ‘그래, 그런거야’ 이후 구성작가 출신으로 능력있는 고아를 이상형으로 꼽아온 커리어 우먼이 완벽한 조건의

외과의사를 만나 결혼했지만 상상도 못했던 시댁의 등장으로 겪는 파란만장한 일상을

유쾌하게 그려낸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라는 주말극으로 데뷔하여

톱 작가로 성장한 박지은 작가를 소개했다.



이처럼 세월의 흐름은 1인 가구, 저출생 고령화, 대안가족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별에서 온 그대〉, 〈푸른 바다의 전설〉, 〈사랑의 불시착〉 등의 시대 변화상을 반영한 박 작가의 작품을 탄생시켰고 ‘세기의 결혼... 세기의 전쟁?’, 퀸즈 그룹 재벌 3세,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 용두리 이장 아들,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 3년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 〈눈물의 여왕〉 가족 서사를 드라마 평론가의 관점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1920년대 마음껏 사랑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암울했던 시기를 살았던 천재 극작가 김우진과 우리나라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의 비극적인 로맨스를 그린 1991년 개봉 영화로 청룡영화상을 찍쓸이한 ‘사의 찬미(死의讚美)’와 2018년 드라마 ‘사의 찬미’는 3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에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애잔함을 콘서트 참여자들과 아름다운 로맨스 감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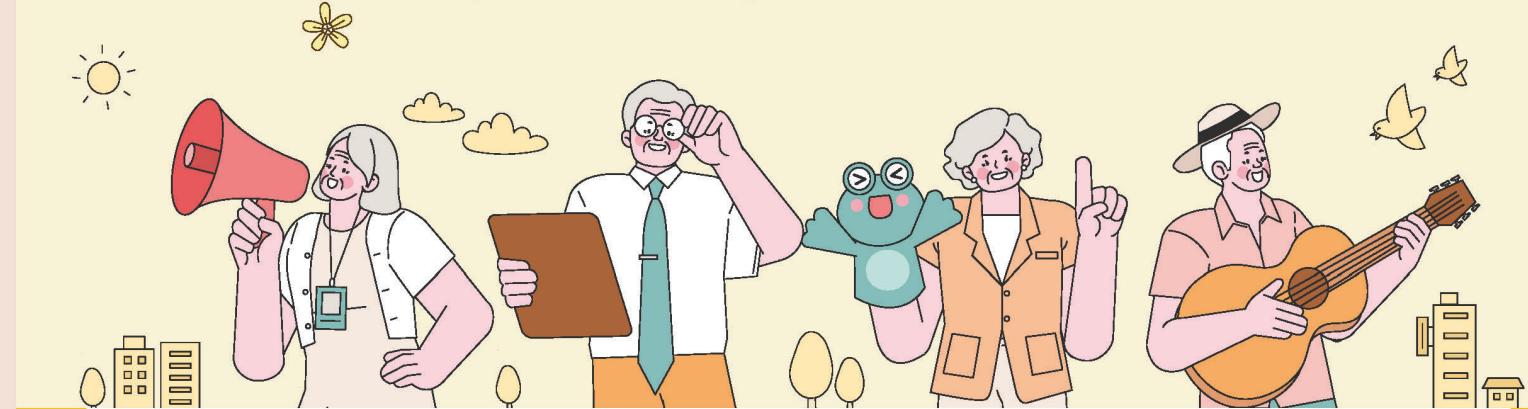
또한 가부장제와 시월드를 다룬 드라마에서 로맨스와 줌마렐라(아줌마+신데렐라)가 등장하고 처월드를 다룬 드라마가 출현하는 시대에 문학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져야 하고, 예술은 아방가르드(avant-garde) 즉 타성에 젖지 않는 기존 예술·관념을 깨뜨리는 것, 전복을 꿈꾸는 시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끝으로 향토문화유산과 전통문화예술의 보전과 계승은 물론 지역민의 문화적 품격 향상을 위해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애쓰시는 유성문화원 직원 여러분들께 지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특히 유성문화원 설립 30주년 기념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문학 콘서트’와 ‘정기문화답사’ 등 다양하고 신선한 콘텐츠 개발에 큰 박수를 보낸다.

#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마감 시까지 상시 상담 접수

접수처 노인일자리 담당자 문의 042-823-3916



## 유성이알림단

연극, 손인형, 그림자인형

유성지역에 관련된 설화, 구전  
동화 및 역사적 인물, 사건을  
인형극 및 연극으로 지역사회  
알리는 공연활동

## 유성이전통단

전통놀이 활동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시설,  
보육시설 등으로 전통놀이체험  
및 전수하는 활동

## 유성이행복단

악 단

노래(트로트), 전통무용, 댄스,  
다양한 악기 등으로 구성된  
악단으로서 장기요양 시설로  
방문하여 활동

## 유성이합창단

합 창

다양한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  
시설 등으로 합창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공감대 형성  
하는 활동

## 문화재지킴단

비지정문화재 지킴

유성구 관내 및 시·도 기관과  
협조하여 비지정문화재 청결  
및 정보수집하여 보존 알리는  
활동



# 2025년 유성문화원 문화강좌 시간표

요일	프로그램명	강사	강의시간	수강료(3개월)	강의실(총)
월	김정선의 노래교실	김정선	10:00~12:00	60,000원	다목적실(2)
	한국무용(월요)	이현숙	10:00~12:00	60,000원	예체능실(4)
	가락장구장단	이춘옥	10:00~12:00	75,000원	전통문화실(4)
	한문서예(월요)	구경희	10:00~12:00	75,000원	취미교실(3)
	여섯줄 클래식 기타교실	홍소림	10:00~12:00	90,000원	라온마실(3)
	경기민요	이순임	13:00~15:00	60,000원	전통문화실(4)
	어반스케치	신지혜	13:00~15:00	75,000원	취미교실(3)
	다이어트밸리댄스	홍지성	15:30~17:30	129,000원	예체능실(4)
	청풍명월	윤민숙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한글서예	윤병건	10:00~12:00	75,000원	취미교실(3)
화	포크통기타 초급	이석진	09:30~11:00	90,000원	세미나실(3)
	포크통기타 고급(핑거스타일)		11:00~13:00	90,000원	세미나실(3)
	포크통기타 중급		14:00~16:00	90,000원	세미나실(3)
	문인화	박경학	13:00~15:00	75,000원	취미교실(3)
	진도복춤	김원경	13:00~15:00	90,000원	예체능실(4)
수	시조창	박학미	15:30~17:30	60,000원	취미교실(3)
	김숙자류입춤	김연의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덧생&수채화	김해숙	10:00~12:00	90,000원	취미교실(3)
	경서도 민요와 장구	오현숙	10:00~12:00	90,000원	전통문화실(4)
	오카리나	한연호	13:00~15:00	90,000원	라온마실(3)
	판소리	지유진	13:00~15:00	90,000원	전통문화실(4)
	김소원 퓨전장구	김소원	10:00~12:00	90,000원	전통문화실(4)
	기초부터 시작하는 유화	최윤정	10:00~12:00	120,000원	취미교실(3)
	우쿨렐레	백선경	10:00~12:00	90,000원	라온마실(3)
	우리춤체조	최민희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목	유화	송채례	13:00~15:00	120,000원	취미교실(3)
	댄스스포츠(월초)	박경민	13:00~15:00	105,000원	예체능실(4)
	댄스스포츠 라틴(초/중급)	이영린	18:30~20:30	90,000원	예체능실(4)
	가야금	권정옥	18:30~20:30	90,000원	전통문화실(4)
	대금과 단소	이재천	18:30~20:30	90,000원	라온마실(3)
	해금(목요)	정다솔	18:30~20:30	90,000원	세미나실(3)
	태평무(오전)	강소정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한국화	김진순	10:00~12:00	75,000원	취미교실(3)
	태평무(오후)	강소정	13:00~15:00	90,000원	예체능실(4)
	토탈 캘리그라피	양 영	15:30~17:30	90,000원	취미교실(3)
금	가야금병창	복선영	15:30~17:30	75,000원	전통문화실(4)
	토요해금	정유라	10:00~12:00	90,000원	라온마실(3)
	한문서예(토요)	구경희	10:00~12:00	75,000원	취미교실(3)
	댄스스포츠 라틴댄스(고급)	이영린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팬플루트(오전)	박상봉	10:00~12:00	90,000원	세미나실(3)
	팬플루트(오후)		12:40~14:40	90,000원	세미나실(3)
토	유성농요	김숙희	12:40~14:40	60,000원	전통문화실(4)

## 유성문화원 시설 대관 안내



층	장소	대관료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기타	냉·난방
1층	전시실 112㎡(약35평)	27만원(9시~17시) 54만원(full 9시 ~21시)	주간(월·화·수·목) 주말(금·토·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냉/난방, 조명 무료</li> <li>전시 종료일은 5시까지 철거 완료 요망</li> </ul>	
2층	다목적실 무대/좌석 80석/ 자유석 20석	36만원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7시 야간 17시~21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형그랜드피아노 5만원 (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li> <li>빔프로젝터, 음향, 무선마이크(3) (노트북 사용자 지참)</li> </ul>	무료
		53만원 89만원	종일 09시~17시 full 09시~21시	-		
3층	세미나실 좌석 50석	15만원	3시간 기준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선마이크(1)</li> <li>빔프로젝터(노트북 사용자 지참)</li> </ul>	무료
	라온마실 무대/좌석 50석	16만원				
4층	전통문화실	13만원	3시간 기준	2만원	음향 없음	음향 무료
	예체능실	13만원				

# 문화유성

YUSEONG Cultural Center

유성문화원 표지 캘리그라피

유성문화원 캘리그라피 강사 심혜순

발행인 이재웅

발행일 2024년 12월

등록번호 대전 라 01023

발행처 유성문화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전화 042)823-3915~6

팩스 042)823-3917

홈페이지 [www.yuseong.or.kr](#)

# 문화육성

2024  
Vol.230  
[www.yuseong.or.kr](http://www.yuseong.or.kr)



3416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Tel. 042-823-3915~6 Fax.042-823-3917